

“연등제의 행렬과 육불은 우리것”

미등 스님, ‘연등제의 역사와 전통’ 학술토론회서 주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에 봉축 연등이 하나 둘 점등되면서 봉축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가난한 여인이 정성스럽게 등 하나를 공양한 우화(貧者一燈)처럼 탐·진·치 삼독의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등은 그 수가 많고 적음과 화려함보다 등 밝히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연등축제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열려 연등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시도했다. 특히 미등 스님(불교의례연구소 소장)은 “연등제의 행렬과 육불은 일제강점기의 잔영이 아닌 전통적인 연등놀이였다”고 주장해 교계의 이목을 끈다.

조계종 문화부와 봉축위원회 행사 기획단이 공동 마련한 학술토론회는 ‘연등제의 역사와 전통’을 주제로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열렸다.

미등 스님은 “일제강점기 연등제 고찰”에서 “일본식 부처님오신날 행사인 하나마쯔리가 일제 강점기때 도입돼 오늘날 연등제 기원을 이룬다는 종래의 학설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2002년 편무영은 <조파일민속문>에서 손에 등을 들고 행진하는 것이 일제 잔재라 했고, 진철승은 ‘부처님오신날, 그리고 연등축제의

과제’에서 제등행렬과 관불은 일본식 풍속으로 일본 하나마쯔리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주장했다.

미등 스님은 “전통문화는 일시적인 급조와 왜곡이 있어도 문화원형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등(提燈)의 ‘제’는 ‘손에 들다’ ‘손으로 끌다’ ‘걸다’의 의미로 등을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제등의 기원은 인도에서 부처님 오신날이면 장식한 수레를 준비해 불상을 안치하고 성내를 돌며 연화를 열고 꽃과 향을 공양하던 행사공

양(行像供養)에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불교에서는 고려 의종(1147~1170) 때 정비된 법가위상과 연등위상에 연등제 행진, 행렬에 관한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등위상은 연등회에서 왕이 거동할 때 100명 이상의 인원이 등장했던 의장대열을 말한다.

미등 스님은 “육불은 <과거현재인과경>에 롬비니에서 탄생한 태자를 난타용왕과 우파난타용왕이 입에서 청정수를 뱉어 태자를 목욕시킨 것에 근거한다. 육불의식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나란다 사원에 10년간 머물렀던 당나라 승려 의정 이 <남해기귀내법전>에 남긴 기록과, 중국 <고승전>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스님은 “한국에서의 육불의식은 통일시라시대 유물인 ‘금동탄생불’과 고려시대 관불의식 때 사용되던 유물을 통해 확인된다”고 말했다.

미등 스님은 “일제강점기 당시 공동체 놀이나 풍속이 금지 또는 변질되는 등 시대적 아픔이 있었고, 연등놀이 역시 같았다. 하지만 관 주도의 연등행사와 별도로 대중들은 행형색의 등을 밝히며 관등놀이를 즐겼



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학술토론회에는 전경옥 교수(고려대)가 ‘연등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양상’을 통해 인도, 중국, 한국 전통사회에서 연등놀이가 대표적 축제였다는 주장을 했다. 전 교수는 “조선조 사대부들의 한시를 예로 들며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 전기에도 고려불교와 연등풍속이 활발했다”고 주장했다. 김명자 교수(안동대)는 ‘세시풍속으로서 연등회와 관등놀이’에서 “연등회 등에는 불교법회와 민속의례가 어우러져있다”는 요지의 주제문을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남해기귀내법전”과 ‘고승전’을 근거로 제시 인도, 중국, 한국 전통사회에서 전통적인 축제

미륵전 공사 중 후령통 발견

금산사 보살상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4월 17일, 김제 금산사 미륵전(국보 제62호) ‘소조미륵좌협시보살상(비지정문화재)’ 복원 공사 중 복장(腹藏)에서 후령통(候鈴筒)을 수습했다고 발표했다.



원통 모양의 후령통은 복장을 담은 통으로 지름 11cm, 높이 20cm로 황초쪽 자(비단)에 싸여있었다. 문화재청은 X-ray 검사 결과 후령통안에 유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추가 정비조사를 의뢰했다.

금산사 미륵전은 백제 법

조동섭 기자

‘부산 범어사 등나무 군락’이라 불러주세요

천연기념물, 명승 지정명칭 변경

천연기념물과 명승 31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명칭이 정비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은 4월 15일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표기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일제 정비된 명칭을 발표했다.

그동안 천연기념물 등 지정명칭에는 통일된 표기원칙이 없어 문화재 특성, 소재지 등이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었다.

일제 강점기때 지정된 명칭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사 ‘의’가 사용돼 다른 문화재 종별과 차별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명칭 정비는 일반인들의 쉬운 이해와 통일된 명칭에 중점을 뒀다.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가 ‘부산 범어사 등나무 군락’으로 변경돼 군락, 군락지, 군생지의 용어가 군락으로 통일되는 등

일관성 있는 단어 사용을 비롯해 ‘대구면의 푸조나무’가 ‘강진 사당리 푸조나무’로 바뀌는 것처럼 소재지 등을 명확히 하고 조사 ‘의’도 삭제했다.

조동섭 기자

목조여래좌상 및 목조보살좌상 유형 문화재 지정

영동 중화사

4월 11일 영동 중화사(주지현구) 소재, 목조여래좌상 및 목조보살좌상이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88호로 지정됐다. 목조여래좌상과 목조보살좌상은 조선 숙종 12(1686)년

에 조성된 불상으로 해당 시기와 불상 제작 편년 등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금 과정과 소속 사원 등 연혁이 적혀 있는 복장 목기(默記) 등이 함께 발견됐다.

손효선 기자

종교권력에 대한 ‘자성’과 ‘자제’ 필요

한국 불자·기독교 교수협의회 제3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MB정부의 특정 종교인 편중 인사는 ‘고소영’ 라인이라는 신조어로 극명히 표현된다. ‘소망교회’ 신도의 잦은 등용은 종교권력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키웠다. 또 18대 총선에서는 통일교의 가정당과 기독교의 기독교당이 후보를 내며 정치 일선에 나섰다. 종교 권력을 경계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했다. 이런 가운데 대형화된 종교의 권력화 움직임에 불자·기독교 교수들이 모여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 중 불자 교수들의 발표를 간추려 소개한다.



4월 18일 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제3회 ‘불자·기독교 교수 공동 학술대회’는 제1부 역사를 통해 본 종교권력과 제2부 한국사회와 종교권력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는 ‘역사상의 불교권력’에서 불교권력 현상을 불교와 정치권력의 관계라는 정치사회적 시각에서 추적했다. 유 교수는 세속 권력에 대한 교리적 원칙에 따른 초기불교의 태도, 정치현실과 타협했던 대승불교, 정치세력화의 유혹이 강했던 호국불교, 고려불교권력 등 불교사 전반에 걸친 통시적 접근을 시도했다.

“현대불교와 종교권력”을 발표한 김경집 교수(간대·사진)는 “불교의 권력화는 세속화를 의미한다”고 말하며 자정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비구·대처 분열에서 벗어난 교단에 종편다툼이 일면서 총무원

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이후 서의현 등 총무원장의 3선 감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교구본사와 중앙총회 권력화가 가속됐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앙총회의 불징계 특권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승려가 중회의원이어서 징계를 피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중앙총회의 권력화 원인을 인적·물적·조직적 자원의 증가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교구본사 주지도 과거 중앙 임명제가 아닌 직선제 선출로 바뀌면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중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했다.

“교구본사 주지와 중앙총회의원 선출로 사법부에 해당하는 호계원 조직 구성원까지 뽑을 수 있는 것은 심각한 권력화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견해다.

불교의 금권화에 대한 우려

도 있었다. 김 교수는 “불교계 금권화의 근본문제는 사원경제의 운영”이라 진단하며, 사찰 재정 비공개를 문제 삼았다.

김경집 교수는 “사찰 재정의 비공개는 사회로부터 불교가 불신 받는 원인이며, 사찰 재정의 불균형으로 사찰 경제의 공동체성이 파괴되고 있다. 사원 경제는 공유와 평등의 정신을 유지하는 동시에 현대사회에 맞는 새로운 운영원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성스러운 것이 타락할 때 종교적 본질도 돌아가려’는 역동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김용표 교수(한국교수불자협의회 회장, 동국대)의 말처럼 참사자들은 종교의 정치화, 상업화, 금권화, 대형화, 성직계급의 권력화 등을 비판하며 자성과 자제의 목소리를 키웠다.

조동섭 기자

왕흥사지 사리 뚜껑서 진사문양 발견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보존처리 결과 발표

2007년 출토된 왕흥사지 목탑터 석제 사리장지 뚜껑 보존처리 결과 진사(辰砂) 문양이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끈다.



일러스트 처리된 진사문양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홍민)는 화강암 재질의 왕흥사지 목탑터 석제 사리장지 뚜껑 오염이 심해 지난해 10월부터 보존처리를 실시했다. 표면 상태 확인을 위해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뚜껑 윗면에서 주칠(朱漆) 흔적이 확인됐고, 주칠이 고착된

(辰砂) 또는 주(朱)로 밝혀졌고 4월 14일 밝혔다.

연구소 측은 “석제뚜껑에서 확인된 주칠과 문양은 절대연대를 가진 국내 최초 사례다. 붉은색 안료를 사용해 나타난 문양은 안료의 재료적인 측면과 문양의 도상면 등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 연구에 일조해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알립니다] 이번주 ‘우리학회는’ 쉽다

성인병 (당뇨·고혈압) 예방

9번쨰고 말린 첫서리맛은 뽕잎차

뽕나무는 신선목이라 하기도 하고 뽕잎은 한방명으로 신선엽(神仙葉)이라 합니다. 신선엽(神仙葉)은 뽕잎을 장복하면 신선이 된다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구중구포 뽕잎차의 특징

1. 혈당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10종이나 들어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2. 혈관내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돕고 혈전을 용해시켜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3. 다이어트, 소화촉진, 관절통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4. 머리를 맑아지게 하며 현머리가 검어지게 하며 탈모예방에 좋습니다.
5. 중풍(뇌졸중)을 예방해줍니다.
6. 중금속을 제거하는 효능이 탁월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합니다.
7. 식이섬유가 녹차의 4.7배가량이나 많아 변비에 좋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금강선원 구입문의 : 055)931-9590
계좌번호 농협 843162-55-000050 금강선원

스님께서 수제로 정성들여 만든 뽕잎차는 금강선원의 선원 불사와 법당불사에 화합을 하오니 신심 있으신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www.ggzen.or.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뽕잎차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송광사 삼월불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16국사의 도량,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는 보조국사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청정승가의 수행과 화합의 정신인 목우가공을 계승해 왔으며 국제 선원과 하계 수련회를 통하여 국내외에 한 국불교의 위상을 널리 선양해 왔습니다. 이번 삼월불사에는 보조국사 종재 대법회를 봉행하고 보살계 수계 산림을 성대히 갖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불사에 사부대중들의 수희 동참을 바라면서 이 인연공덕으로 다같이 복해가 구축하고 큰 깨달음을 이루어 모두 성불하여지이다.

안 내

- ◆일 시 : 불기 2552(2008)년 5월 1일(음 3.26) ~ 2일(음 3.27) 2일간
- ◆동참방법 : 삼월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송광사 중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참금 : 삼월불사 보살계 수계동참 : 30,000원 / 영가천도 동참금 : 10,000원
 - 보살계·영가천도 동참금 계좌번호 : 농협 615107-51-021671 (예금주 : 송광사)
- ◆문의처 : 송광사 중무소 061)755-0107~9 / FAX 061)755-0408

승보종찰 송광사 주지 영조 합장